

# 건강한 삶은 어린이의 인권



현 승 종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

1948년 12월 10일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어린이 권리 개선을 위해서도 중요한 신호탄이었다. 인간의 기본권을 국제적으로 보장한 이 선언은 1950년 11월 20일 ‘아동권리선언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을 이끌어냄으로써 어린이 권리 보호의 새 지평을 열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30년 후 모든 어린이의 권리를 집대성한 국제조약 ‘유엔아동권리협약’ 을 탄생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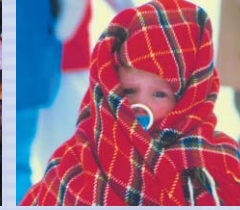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어린이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이해와 관용의 정신을 배우며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누려야 할 권리를 명시한 어린이 인권조약이다. 채택된 지 1년만에 국제법으로 인정받았으며 2006년 현재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한 192개국의 비준을 받음으로써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국제법이 되었다.

아동의 권리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건강할 권리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여가와 놀이를 즐기고 발달을 위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는 일, 모든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권리지만 현실에서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 최빈국의 많은 어린이들이 여전히 기본적인 예방접종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4억 명의 어린이가 깨끗한 식수를 얻지 못한 채 살아간다. 물 부족과 오염된 환경은 어린이의 건강을 악화시켜 하루에 4천 5백 명의 어린이가 생명을 잃고 있다.

신체적 건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마음의 건강이다. 신체적인 질병보다 오히려



아동의 권리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건강할 권리이다. 특히 마음의 질병은 신체적인 질병보다 오히려 더 큰 장애를 어린이에게 남길 수 있다. 내 아이의 건강을 지키려는 마음을 지구촌 먼 나라 어린이에게까지 나누어 주고 나보다 못한 이들을 나와 같이 존중해줄 때 인권 침해의 많은 사례는 사라질 것이다.



더 큰 장애를 어린이에게 남길 수 있다. 마음의 건강을 잃는 아이들은 가난한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어린이들은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방과 후 학원가를 전전하며 놀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어린이에게 정서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청소년들 사이의 폭력도 마찬가지다. 폭력이라 하면 흔히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폭력을 떠올리게 되지만 욕설이나 놀림 등의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 등도 아이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남기는 폭력행위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집단 괴롭힘이 원인이 되어 자살을 하거나 정신적 장애에 시달리는 청소년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또래들과의 놀이문화가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10대들에게 외로움과 고립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 12일 3년여의 연구를 통해 발표된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의 ‘아동폭력보고서’ 또한 어린이들 사이에 빈곤이나 출신 성분, 용모나 장애를 이유로 친구를 괴롭

히는 현상을 심각한 폭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는 어떤 경우에도 차별받아서 안 됩니다. 어떤 부모를 가졌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의 기본정신을 담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2조 내용이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함은 나와 다른 인종과 문화, 나와 다른 특징의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 아이의 건강을 지키려는 마음을 지구촌 먼 나라 어린이에게까지 나누어 주고 나보다 못한 이들을 나와 같이 존중해 줄 때 인권 침해의 많은 사례들은 사라질 것이다. 더불어 지금 죽어가는 수많은 세계 어린이들이 건강을 되찾고 미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소망해 본다. 